

광주은행 130명 정규직 전환

광주은행이 창구의 텔러 직원 13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오는 7월 비정규직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은행권의 경우 지난해 3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정규직 전환 '바람'이 불면서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에 이어 국공은행으로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9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오는 3월1일자로 비정규직 창구 텔러 직원 13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현재 광주은행의 비정규직 창구직원은 모두 220명으로, 이 가운데 1년 이상 근무자 130명이 1차로 정규직(7급)으로 전환된다. 나머지 90명은 1년 경과 후 경영환경 등을 고려해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된다.

광주은행은 또 사무보조, 우편물 업무 등 110명의 기타 비정규 직원들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창구 텔러 및 무기계약 직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복지혜택을 받게 되며, 급여체계도 개선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에는 광주신세계와 기아차광주공장이 비정규직 사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단행하는 등 광주·전남 업체들의 정규직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해 8월 광주신세계 백화점과 이마트 등 광주·전남지역 7개 점포에 소속된 비정규직 35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기아차도 광주공장 8명을 비롯해 사무계약직 직원 109명을 지난해 7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금융권의 정규직 전환 '바람'도 거세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3월

광주신세계·기아차는 지난해 단행 7월 비정규직법 확대 시행 앞두고 지역기업들 속속 전환 "노동 안정"

은행권 최초로 3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을 시작으로 의환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1천여명, 7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올해 각각 5천여명, 65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농협은 오는 12일 면접을 통해 텔러직원 800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나서는 등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같은 정규직 전환 추세는 오는 7월 비정규직법 확대 시행을 앞두고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비정규직법을 적용한 데 이어 오는 7월부터는 1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한다. 해당 기업은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취임 100일 김 정 민 광주지방국세청장 "부실과세 줄이기 세정 집중 기업 출장 세무조사도 자제"

"영세 중소기업들이 많은 광주·전남지역의 특성을 고려,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들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하느라 바쁘게 지낸 것 같습니다."

지난 8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김정민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기업들이 사업에 불편함을 없도록 출장 세무조사를 자제하는 등 '섬김 행정'을 통해 지역 기업 살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성공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던 데 대해 지역 납세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보답"을 표하며 "올해는 특히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한 세정에도 관심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최신 민간 경영기법인 6시그마 제도를 도입, 부실과세를 줄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부실과세는 납세자에게 막대한 시간·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주고, 국제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초래한다는 평소의 지론을 반영한 의욕적인 시도다.

김 청장은 "과세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납세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과세원칙을 충실히 준수, 납세자가 감동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양도세 조기인하 방안 마련 착수

인수위 "거래 촉진 ... 집값 안정 효과" 새로운 재개발 이익환수 장치도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장치와 양도소득세를 조기 인하방안 마련작업에 들어갔다.

9일 인수위원회와 건설교통부는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판단에 따라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제와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새로운 환수장치를 검토해 이달중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인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 2분과 간사는 "종부세는 지금 세율을 낮춰 시행해도 연말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부동산 시장상황을 살펴가며 천천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부동산 가격 안정에 한국은행도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는 "부동산 투기는 유동성 과잉에 따른 것으로 이는 통화정책으로 해소해야 한다"면서 "LTV(담보인정비율)나 DTL(총부채상환비율) 등의 대출규제는 2차적인 유동성 관리수단"이라고 말했다.



현대해상화재 호남지역본부 신사옥 준공

현대해상화재보험 호남지역본부(본부장 주계훈)는 9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서 광주 신사옥 준공식을 갖고 '제2의 도약'을 다짐했다. <사진> 이날 준공식에는 정몽준 현대해상 회장, 정수현 현대건설 부사장, 김태집 (주)간삼파트너스 사장 등 2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호남본부 개소 10주년과 신사옥 이전을 자축했다.

정 회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광주 신사옥은 최첨단 시스템과 고객 친화적 환경을 갖춘 만큼 광주·전남지역 보험문화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호남본부 신사옥은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로, 상무지구 이마트와 CGV 사이에 있다.

현대·기아차, 정찬용 前수석 사장급 영입

그룹 인재개발원장 임명

정찬용(58·사진)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9일 현대·기아차 그룹 인재개발원장(사장급)에 임명됐다.

대기업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출신 인사를 영입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전 수석과 현대·기아차 그룹과의 인연은 지난해 여수엑스포 유치활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인사수석에서 물러난 뒤 외교교통부 비정부기구(NGO) 담당대



사와 서남해 안포럼 상임대표로 일하던 정 전 수석은 여수엑스포 유치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엑스포 유치위원회 명예위원장을 맡았던 정몽구 현대·기아차 그룹 회장과 자연스레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 엑스포 유치에 성공한 뒤 정 회

장이 정 전 수석에게 인재개발원장직을 전격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원장은 "인사수석으로 일한 경험을 정 회장이 높게 평가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 현대·기아차 그룹의 인재육성에 관한 설계도를 그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일고와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한 정 원장은 20여년 동안 시민운동가로 활약해 왔으며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첫 청와대 인사수석으로 기용됐다.

aT광주·전남지사 정책자금 5천억 지원

aT(농수산물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권웅주)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민간업체 및 생산자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이 자금은 모두 5천233억원 규모로 ▲저장사업자 ▲가공사업자 ▲생산유통사업자 ▲수출사업자로 구분해 지원된다.

저장사업자는 저온창고를 소유하면서 마늘·양파 등 채소류와 사과·배·단감 등의 과실류 저장사업 운영자나 종자사업자들이 해당된다.

금리는 3~4% 수준으로 담보 대출이다. 자세한 내용은 aT홈페이지(http://www.at.or.kr 자금지원정보)를 참조하면 된다.

지원신청서는 저장·가공사업자의 경우 오는 18일까지, 수출사업자는 25일까지 aT 광주·전남지사서 받는다.

문의 (062)944-2623.

KT전남본부-조선대 통신망 이용 협정 체결

KT전남본부와 조선대가 9일 오전 조선대 통신망 구축 및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으로 조선대 캠퍼스 통신망은 기존 아날로그 방식에서 24시간 관제를 통한 장애예방 기능을 갖춘 디지털 시스템의 최첨단 IT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양 측은 향후에도 대용량급 인터넷 회선 설치, 유비쿼터스 기반의 초고속 무선인터넷 도입 등 IT인프라 고도화 구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송기유 KT전남본부장은 "앞으로도 대학과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교류 활동도 활발하게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업체 모집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센터장 박준근 청장)는 내수 또는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해외진출 기반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 참여업체를 오는 1월말(최종 공고일자 미정)부터 모집한다.

수출기업화사업은 직전년도 직수출액이 100만불 이하인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다.

수출지원센터는 오는 1월말(28일 예정)부터 2주간 신청업체 접수를 받고, 현장평가와 진단 후 2월말 최종지원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문의 (062)360-9192.

제2기 Lab Manager 취업교육 기관학교 교육생 모집

1. 교육 목적: 취업준비생의 취업역량 강화, 취업정보 제공,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교육 대상: 취업준비생,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는 기업

3. 교육 내용: 취업정보 제공,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역량 강화

4. 교육 일정: 2008년 1월 10일 ~ 1월 20일

5. 교육 장소: 광주광역시 남구 동남로 100번길 10 (동남로 100번길 10) 10층

6. 문의처: 광주광역시 남구 동남로 100번길 10 (동남로 100번길 10) 10층

고유가시대의 최상의 경쟁력 심야 전기보일러 특별보급

보일러를 설치할 때 가장 저렴한 심야전기 보일러를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1. 심야전기 보일러 특별보급 대상: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할 때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2. 심야전기 보일러 특별보급 대상: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할 때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3. 심야전기 보일러 특별보급 대상: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할 때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4. 심야전기 보일러 특별보급 대상: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할 때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5. 심야전기 보일러 특별보급 대상: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할 때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6. 심야전기 보일러 특별보급 대상: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할 때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7. 심야전기 보일러 특별보급 대상: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할 때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8. 심야전기 보일러 특별보급 대상: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할 때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9. 심야전기 보일러 특별보급 대상: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할 때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

10. 심야전기 보일러 특별보급 대상: 심야전기 보일러를 설치할 때 398만원에 특별공급합니다